

철 든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철에 사랑을 더하면 도시는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철에 사랑을 더하면 생활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강기업 세아,
철에 대한 사랑으로 꼭 찬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세아 ESAB 세아메탈 세아 M&S 세아네트웍스 세아로지스

SeAH

세 아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세아그룹
2013.07~08



HONEST

07+08
JUL + AUG 2013

SeAH

CONTENTS

JUL +AUG 2013
VOL. 346

가슴에 정직함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항상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업과 사회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세아의 첫 번째 핵심가치 '정직'
정직은 세아의 근간이자,
세아의 머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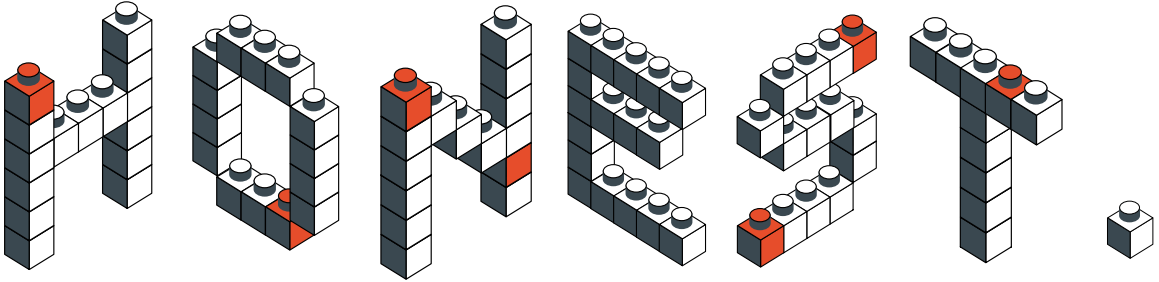
〈세아가족〉통권 346호 2013년 07+08호
발행일 2013년 8월 19일 발행인 김진규 발행처 세아홀딩스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6970-0093
디자인·제작 대통기획 02-2269-3613
표지촬영 Season2 Studio 02-538-9916
표지모델 세아특수강 봉강파트 금기철 대리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SPECIAL SeAH

04	SPECIAL THEME	바르고 곧게, 정직
06	REAL TALK	세아제강 이휘령 사장과 사우들이 나눈 정직에 관한 대화
10	OUR HARMONY	세대공감, 나에게 정직이란?
14	THEME INTERVIEW	경기무형문화재 41호 서광수 장인
18	THEME IN SeAH	세상을 이롭게 한 정직한 삶
20	SOMETHING ABOUT US	정직해서 고마운 네 개의 이름
22	THEME STORY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의 힘, 정직



HIGHLIGHT SeAH

24	SeAH'S HISTORY	미국 현지법인 Pusan Pipe America 설립
25	ZOOM IN	CI 컬러 시스템
26	FOCUS	세아타워 오픈 기념식
30	TEAM MISSION	세 남자와 떠난 시원한 바캉스! 세아 M&S 생산팀
34	HOT ISSUE I	Let's go 오페라
36	HOT ISSUE II	CBS 추진 준비 워크샵

HIGH-FIVE SeAH

40	HIDDEN CHAMPION	세아특수강 봉강파트 금기철 대리
44	LOVE & COMPASSION	故 이운형 회장 100일 추모 음악회
46	SeAH NEWS	세아뉴스
49	SeAH PEOPLE NEWS	사우동정
50	EPILOGUE	에필로그
51	SECRET NOTE	정직을 실천하는 나만의 노하우

인격을 향기롭게,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치, 정직(正直).
정직은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기업을 유지시키는 구심점이며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세아가족 7+8월 호는 '정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아의 첫 번째 핵심가치이자 세아인의 가슴에 새겨야 할 덕목,
'정직'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지금 시작해 볼까요?

바 르 고 곧 게 , 정 직 (正 直)

세아의 근간이자 첫 번째 핵심가치인 정직. 그러나 정직은 조금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세아인들이 핵심가치 정직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아제강 이휘령 사장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정직이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세아제강 이휘령 사장과
사우들이 나눈 ‘정직’에 관한 대화



이휘령 사장이 말하는 ‘정직’의 정의

이동혁 사원 정직이라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또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떠오르는데요, 이휘령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직이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휘령 사장 초반부터 어려운 질문이네요.(웃음) 정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고,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馬)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여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즉 정직이란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비책(秘策)이자 행복의 유효기한을 늘려주는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내일 사라질 운명이라면, 오늘 하루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며 제멋대로 살아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도 좀 더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정직이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도 좀 더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정직이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직과 관련된 에피소드

황성윤 사원 사적인 질문입니다만, 이휘령 사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정직하고 뿌듯했다’고 생각하시는 일이나, 정직하지 못해 손해를 봤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휘령 사장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한데.(웃음) 대학생 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 때는 통금이란 게 있어서 밤 11시 전에 집에 돌아와야만 했지요. 당시 연애중이었던 저는 데이트를 마치고도 아쉬움이 남아 공중전화에서 통화를 하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때 외할아버지(故 이종덕 창업 회장)께서 “어디 가느냐?”고 물으시기에, “약국에 간다”고 얼버무리고 나왔어요. 한참 통화를 하고 집에 돌아가니 “약국엔 왜 갔느냐, 어느 약국에 갔느냐, 어디가 아프냐, 무슨 약을 샀느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셔서(웃음) 결국 이실직고를 해야만 했어요. 창업 회장님께서 거짓말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셨거든요.



뿌듯했던 일이라면, 미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그 당시 저는 핫 코일이라는 원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거래처의 계산 실수로 우리회사에 조금 더 이익이 생긴 일이 있었어요. 오퍼도 다 받은 상태였고 상대방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하던 터라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거예요. 결국 상대방의 계산 착오에 대해 정직하게 알려주는 쪽을 선택했고, 그 사건이 신용을 쌓는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파트너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열쇠, 정직

곽서원 사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기업도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휘령 사장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역시 탄생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이름을 알리던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것처럼, 기업도 오래 지속되길 원합니다.

이야기가 잠깐 딴 곳으로 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평소 사극을 즐겨 보는 편입니다. 궁에서의 암투와 모략은 사극의 단골 소재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등장인물을 보면서 '저들 중 진정한 승리자는 한 시대를 호령한 간신배가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쪽을 선택해 영원히 이름을 떨친 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기업이 오랫동안 존경받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기업이라 해도 부정직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핵심가치가 정직한 것도 세아의 연속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역시 탄생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이름을 알리던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것처럼, 기업도 오래 지속되길 원합니다.



정직으로 일군 세아의 역사

이동혁 사원 세아의 역사에서 정직으로 이룬 성과나 일화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이휘령 사장 우리회사는 정말로 정직하게 원칙과 법을 준수한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대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기업들은 대부분 탈세를 하니, 이 정도의 벌금을 책정해야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회사는 탈세를 한 적이 없으니 1원의 과태료도 나올 것이 없었지요. 그러다보니 세무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을 못해 화가 나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세금을 냈는데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 억울했던 해프닝이 무척 많아요. 53년이라는 우리회사의 긴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비자금이나 횡령, 탈세와 같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것도, IMF 위기를 투명한 재무구조로 뛰어넘은 것도 세아에 정직한 기업문화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과 일에서 정직을 실천하는 세아인이 되어주길

황성윤 사원 마지막으로 세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휘령 사장 정직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기보다는 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바 업무에 책임을 다 하고, 타인 또는 자신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직한 자세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니까요. 각자의 삶과 일에서 정직을 실천하는 당당한 세아인으로 성장해주시길 바랍니다.

Mini Interview



세아제강 경영혁신팀 이동혁 사원

우리회사가 걸어온 정직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서 상대방에게 한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직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세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황성윤 사원

우리의 핵심가치 정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직의 가치를 가슴에 새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휘령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아특수강 구매팀 곽서원 사원

이휘령 사장님께서 진솔하게 말씀해주셔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와 생활에서 원칙을 지키고, 당당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ur Harmony

세대공감, 나에게 정직이란?

세아인은 정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필로 직접 작성한 답안을 통해
정직에 대한 각 세대별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20대

“정직이란 용기다!”

세아로지스 국제물류팀 이효인 사원

정직이란 부정직함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지키는 올바른 마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2013년 7+8월 세아가족 시험
‘정직’ 평가 고사

이름 이효인 나이 28
소속 세아로지스
팀·파트 국제물류팀 사원

제1교시

[객관식 1] 다음 중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동화 속 캐릭터를 고르시오. (3)

① 토끼보다 느리지만 완주에 성공한 ‘거북이’
② 금은보화가 열리는 박씨로 흥부에게 보답한 ‘재비’
③ 금도끼 은도끼가 아닌 쇠도끼가 자신의 것이라고 답한 ‘나무꾼’
④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사랑을 지킨 ‘춘향이’

[객관식 2] 생개풀과 코 수술 후 물라보게 예뻐진 당신. “성형했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1)

① 정직하게 “눈, 코 두 곳 했다”고 말한다
② 대답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긴다
③ “한 군데는 했다”고 밝힌다
④ “100% 자연산”이라고 잡아챈다

[객관식 3] 다음 중 정직을 실천하기 가장 힘든 상황은? (3)

① 실패하고 묻는 여자(남자) 친구에게 “솔직히 많이 찼다”고 답하는 것
② “결혼 전 몇 명과 사귀었냐”고 묻는 아내(남편)의 질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
③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는 시험장에서 홀로 정직하게 문제를 푸는 것
④ 피곤한 퇴근길, 천근만근인 몸으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객관식 4] 다음 중 가장 정직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4)

① 업무 중 실수를 하면 바로 보고하는 이 사원
② 근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박 대리
③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김 과장
④ 회사의 발전을 위해 총대 메고 쓴 소리를 하는 최 부장

[주관식 1] 세아가족 중 수출입 담당 (팀·파트) 신동주 (이름, 직급)
이/가 ‘정직’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메시에 거짓말이 많고 정직적이며, 때로 손해를 보거나 기분이 상해도 정직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주관식 2] 나의 ‘정직’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해외 활동에 위해 가끔 집사감을 속이기 때문이다.)

[주관식 3] 평소 존경하던 상사가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당신. 사실을 보고하면 상사가 해고를 당하고, 모른 척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정직히 상사에게 부정직에 대한 자제를 요청드리고, 상사를 믿어보겠습니다.

[주관식 4] 내 생애 가장 ‘정직했던 순간’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집 앞 어린이집 학비는 주저로 꺼냈었는데, 어린이집 측에서 보지 않고 없었지만, 정성어린 편지라 학비를 그걸 사랑 받자고 무척 많이 넣어둔 일이 있습니다.

20대

“모든 인간관계도 정직함만 있다면 OK~”

세아홀딩스 경영지원파트 황혜림 사원

제가 생각하는 정직이란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고요. 저 역시 회사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3년 7+8월 세아가족 시험
‘정직’ 평가 고사

이름 황혜림 나이 28세
소속 세아홀딩스
팀·파트 경영지원파트 사원

제1교시

[객관식 1] 다음 중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동화 속 캐릭터를 고르시오. (3)

① 토끼보다 느리지만 완주에 성공한 ‘거북이’
② 금은보화가 열리는 박씨로 흥부에게 보답한 ‘재비’
③ 금도끼 은도끼가 아닌 쇠도끼가 자신의 것이라고 답한 ‘나무꾼’
④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사랑을 지킨 ‘춘향이’

[객관식 2] 생개풀과 코 수술 후 물라보게 예뻐진 당신. “성형했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3)

① 정직하게 “눈, 코 두 곳 했다”고 말한다
② 대답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긴다
③ “한 군데는 했다”고 밝힌다
④ “100% 자연산”이라고 잡아챈다

[객관식 3] 다음 중 정직을 실천하기 가장 힘든 상황은? (3)

① 실패하고 묻는 여자(남자) 친구에게 “솔직히 많이 찼다”고 답하는 것
② “결혼 전 몇 명과 사귀었냐”고 묻는 아내(남편)의 질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
③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는 시험장에서 홀로 정직하게 문제를 푸는 것
④ 피곤한 퇴근길, 천근만근인 몸으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객관식 4] 다음 중 가장 정직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2)

① 업무 중 실수를 하면 바로 보고하는 이 사원
② 근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박 대리
③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김 과장
④ 회사의 발전을 위해 총대 메고 쓴 소리를 하는 최 부장

[주관식 1] 세아가족 중 수출입 담당 (팀·파트) 신동주 (이름, 직급)
이/가 ‘정직’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 이기 때문이다.

[주관식 2] 나의 ‘정직’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관식 3] 평소 존경하던 상사가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당신. 사실을 보고하면 상사가 해고를 당하고, 모른 척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선택: 긍정적으로
이유: 상사에게... 성형에 따라 어떤지 믿을 게 못 믿고 생각하며 일단 긍정으로 한다. 금피만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고발을 봐드리야 한다면 생각된다!!

[주관식 4] 내 생애 가장 ‘정직했던 순간’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바쁘게 사는 나는 한때나 주선동안 도와주셨던 7 (관객과 제가 만나고 77 중 미팅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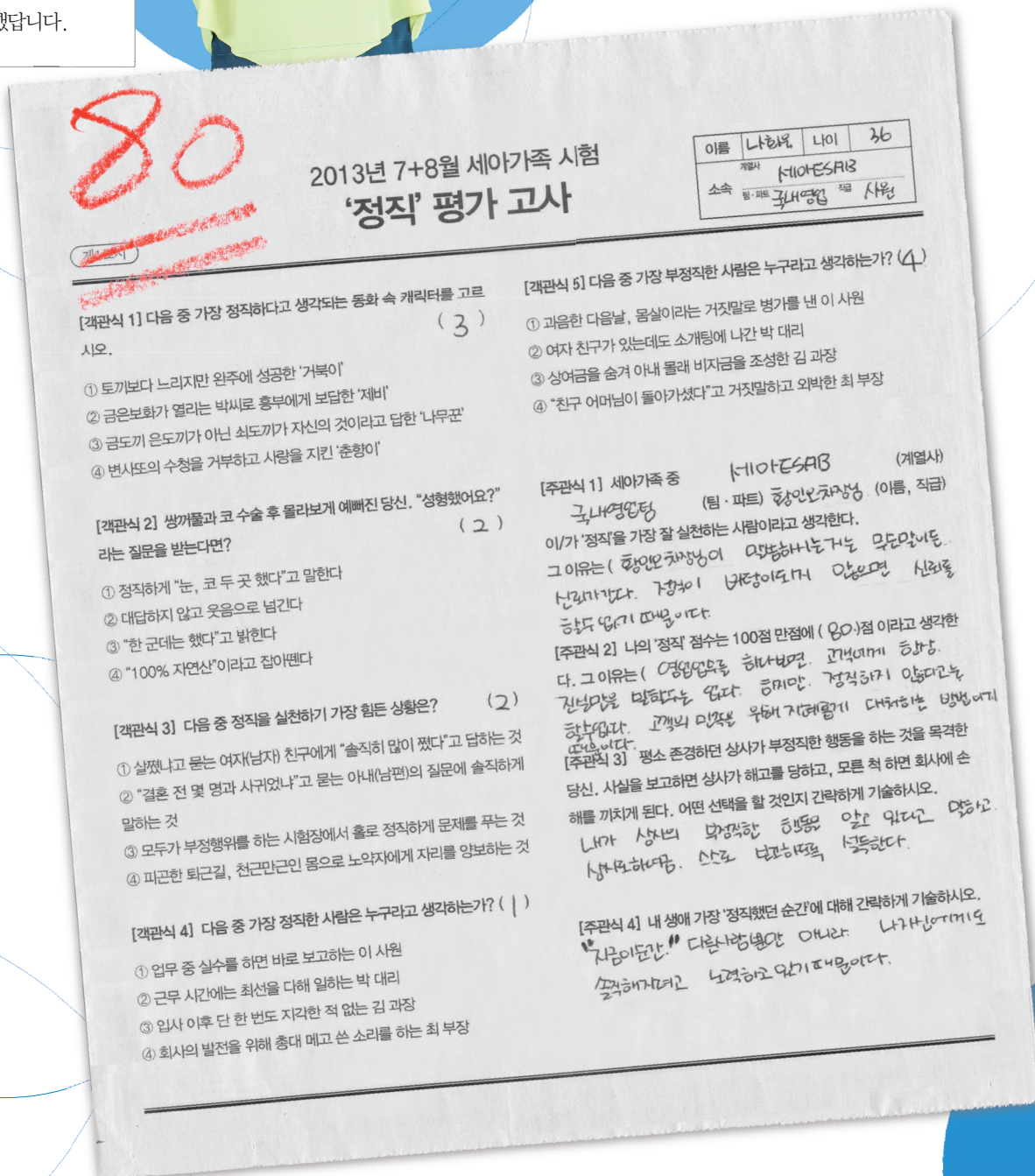


30대

“나의 정직 점수가
100점이 될 때까지!”

세아 ESAB 국내영업팀 나희욱 사원

정직은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
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를 습득한
분이 직접 등기로 보내주셨어요. 그
분을 통해 저도 더욱 정직하게
생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세아인이 생각하는

정직이란

‘용기’이고

‘언행일치’이며

‘힐링’이고

‘평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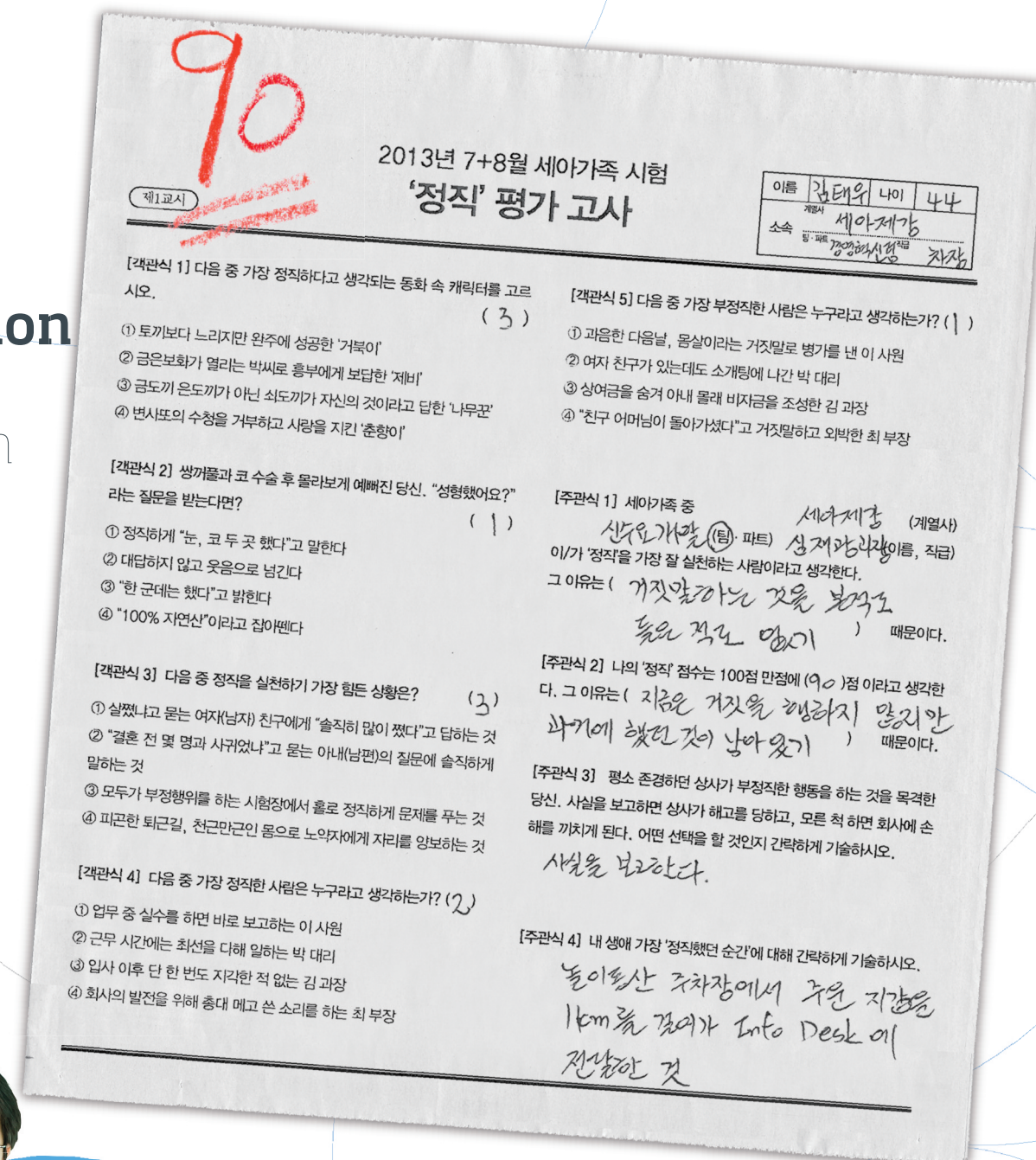


40대

“정직은 독서할 때 느끼는
‘평화’와 같다”

세아제강 경영혁신팀 김태우 차장

가장 정직한 사람이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면 매일 불안에
떨어야 할 테니까요. 멍멍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직하고자
노력한답니다.



The Story of the Master Craftsman

걸작을 향한 도공(陶工)의 정직한 마음

대한민국 명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한도(韓陶) 서광수 장인

전통방식을 지키기 위해 장작가마를 고집하는 도예명장이 있다.

어머니 젖빛을 닮은 유백색을 재현하기 위해 50년을 불가마에 바친 열정,
최고의 작품이 아니면 가차 없이 깨버리는 그를 보며 우리는 옛 도공의 혼을 느낀다.

‘정직하지 않으면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나라 도자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도(韓陶) 서광수 장인을 만났다.



열셋, 흙과의 인연

서광수 장인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이천을 찾았다. 새파란 논이 계단식으로 펼쳐진 마을 끝자락에 ‘대한민국 명장의 집’이라 새겨진 현판이 보였다. 그의 작업실 ‘한도요(韓陶窯)’였다.

서광수 장인은 1948년 경기도 이천시 신문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이었기에 서 장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농사를 지을까, 공장에 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농사나 공장일은 싫더라고요. 이천은

도자기에 바친 외길 인생

서광수 장인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간문화재로 손꼽히는 도암 지순택(陶庵 池順澤 · 1912~1993) 선생이다. 지순택 선생이 이천으로 내려와 ‘고려도요’를 열었던 1963년부터 약 11년 간 사사를 받으며 새로운 예술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지순택 선생의 가르침 아래 대토, 성형, 조각, 유약, 소성 등 도자기 제작의 전 과정을 연마할 수 있었고, 스물다섯에는 소성담당(가마대장)으로 승격했다. 소성이란 1300℃가 넘는 가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도자기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꼽힌다. 반죽과 성형을 잘했다 하더라도 열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폐기물로 전락해버리기에 수십 년 경력자도 불의 움직임과 온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소성담당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서 장인은 “1976년까지 도암 선생에게서 도자기를 배움으로써 예술에 눈을 뗀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전통을 승계하는 명장이 될 수 있었다”며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1986년 독립 후 자신의 호를 딴 ‘한도요’를 설립하며 자신만의 도자기 세계를 펼치기 시작한 서광수 장인. 도공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을 돌아본 그는 달항아리에 모든 인생을 걸기로 결심한다. 달항아리는 둥그런 몸체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대형의 조선시대 백자항아리를 일컫는 이름으로, 희고 깨끗한 살결과 둥글둥글한 생김새가 보름달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졌다. 18세기 전반의 백자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색깔과 형태를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도 달항아리는 단연 으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달항아리는 어머니 젖빛처럼 뽀얀 유백색을 띄는데, 이는 백의민족(白衣民族)인 우리민족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 “달항아리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가 된 기분이 들어요. 유백색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처럼 자비로운 마음이자, 백의민족(白衣民族)인 우리들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상징하지요.” 달항아리의 유백색에 빠져든 서광수 장인은 맑고 깊이 있는 색을 찾

아내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1993년 꿈에 그리던 유백색을 만드는 유약을 개발해 냈다.



걸작을 향한 정직한 마음

서광수 장인은 전통방식 그대로 도자기를 만드는 몇 안 되는 도예가 중 한사람이다. 전국을 찾아다니며 가장 좋은 흙을 구해 반죽을 하고, 젊은 사람도 힘들어하는 ‘발 물레’로 성형을 한다. 안료와 유약도 자연에서 직접 구하고, 전통방식 그대로의 장작가마를 고집한다. 장작가마는 1300℃가 넘는 가마 앞에서 36시간 눈 불일 틈도 없이 계속 불을 때야 하고, 바람이나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하기 에 도예가들도 점점 기피하는 추세다. ‘도자기의 땅’이라 불리는 이천에서도 서광수 장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전기가마나 가스가마를 사용해 현재는 그 맥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다. “가스가마나 전기가마에 넣은 도자기는 열이면 열, 모두 똑같은 색으로 나오기에 상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통가마는 불을 많이 받은 곳과 적게 받은 곳, 온도 등에 따라 빛깔이 다 다르기에 작품으로 인정받죠. 생각지도 못한 작품이 나올 때가 가장 즐거워요.”

그렇게 탄생한 도자기도 장인의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가차 없이 깨버린다. 장작가마에서 건질 수 있는 작품은 열 개 중 겨우 한두 개. “깨버릴 때는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잘 완성됐을 때는 기분이 좋아 술을 마셔요. 술을 잘 마시는 것도 도공의 일이에요.”라며 허허 웃었다.



도자기와 살아온 52년. 수많은 작품을 세상에 내 놓은 장인이지만, 지금도 작품을 시작할 때면 산에 올라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린다.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비법은 ‘올바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걸작을 만들 수 없어요.”라고 힘주어 말하는 서광수 장인. 그의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것은 오직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외길을 걸은 그의 인생이 ‘정직’과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부터 민요(民謠 · 조선시대 민간에서 도자기를 굽던 가마)가 있던 지역이라, 가마터를 보고 자랐던 저는 ‘차라리 동네에서 그릇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52년 간 저를 도자기만 만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서광수 장인은 열세 살 어린 나이에 공방에 취업했다. 멋진 그릇을 만들겠다는 포부와는 달리 어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청소나 심부름 같은 허드렛일뿐이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년을 버티자 물레(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돌림판)를 차게 됐다. 일에 재미를 느낀 그는 아예 공방 근처에 움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다. 모두가 퇴근한 밤이면 호롱불을 켜 놓고 어깨 너머로 본 것을 연습한 노력 끝에 10대의 나이에 도자기 제작의 전 과정을 터득할 수 있었다.



The Founder Haiam's Life & Philosophy

세상을 이롭게 한 '정직'한 삶

故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이 걸어온 바르고 곧은 삶

故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은 '정직'으로 세아의 근간을 만드는 데 평생을 바쳤다.

지난 반세기를 관통한 '정직'이라는 가치가 세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의 인생을 통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일과를 정리중인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

돈보다 값지게 여긴 '정직'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은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에서 상업자본을 일으키고 이를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주역 중 한사람이다. 농촌에서 태어나 땅과 함께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땀 흘려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았다. 흘린 땀방울만큼 정확하게 돌려주는 땅의 정직함을 터득한 그는 '인생도 땅처럼 정직하게 살겠다'는 신념을 세우게 된다.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과 철과의 인연은 21세 되던 해 일본인 회사 미나도상회(금고 제조업)에 입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광복을 거쳐 을지로2가에 해동공업사를 설립, 미국 일본 등에서 철판과 강관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 시절은 물자가 부족하고 환율의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철강재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이를 이용하면 쉽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으나,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은 적정 이윤 이상으로 값을 올려 남의 돈을 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직하고 성실한 상거래로 신용을 쌓아가는 것에 주력했다.

지속성장하는 기업을 만들다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내려온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은 특유의 근검절약과 성실함으로 해덕철강상사를 설립,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지속성장하여 국가산업을 일으키는 주춧돌 기업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부산철관공업을 창립, 7년 만에 국내 최초로 강관을 수출하는 길을 열었다. 역경을 헤치고 힘들게 일하면서 체득한 정신과 "남보다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가난을 벗을 수 없으며, 남과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없다"는 생활신조를 평생 동안 지킨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 그의 신념은 우리나라 강관 제조업을 반석 위에 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직'을 근간으로 일생을 살았던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

그는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했으며, 작게는 고향 사람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근검, 기본, 원칙을 중시한 삶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은 근검으로 일관하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한 삶을 살았다. 기업을 개인의 축재(蓄財)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며, 얻은 수익은 전액 자본으로 전입하여 재투자함으로써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그는 회사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했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승용차를 두고 지하철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나 신기술, 신설비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자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의 이러한 신념은 '무차입 경영'으로 이끌어 세아를 내실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기업들이 빚을 내어 사업 확장을 도모할 때도 금융기관에 손 벌이는 것을 자제했는데, 이는 남의 돈을 쓰면 간섭을 받게 되고, 그러면 뜻대로 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의 바르고 곧은 신념은 권력, 투기자본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자력으로 사업을 이끌게 했고, 세아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만들었다.

세아의 근간이자 첫 번째 핵심가치 '정직'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은 '정직'을 근간으로 일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의 철학은 정도경영(正道經營)으로 이어져 세아를 지탱한 힘이 되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땅 투기나 세금 탈세 등으로 번 돈과 노력해서 번 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무리 돈을 벌고 회사 운영을 위해서라고 해도 하루에 밥 세 그릇 이상은 못 먹는다. 그 외에는 다 세금으로 내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1992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작게는 고향 사람들을 서울로 초대해 대접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세아가 산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강관산업을 일으킨 지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한다. 반세기의 굴곡을 지나 글로벌 철강 전문 기업으로 세아가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故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이 몸소 보여준 '정직'의 가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Thank You for Telling Me the Truth!

정직해서 고마운 네 개의 이름

주변을 둘러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직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
어찌 보면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정직의 아이콘들이 있어 세상은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돌아간다.
정직하기로 손꼽히는 네 개의 아이콘을 소개한다.



신호등

빨, 노, 파, 생명을 담보로 한 정직의 컬러
세계 최초의 신호등은 1868년 영국 런던의 가스를 사용하는 수동식 신호등이었다.
그러나 가스폭발이 자주 일어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촛불 신호등과 석유 신호등으로 바뀌었다.
이후 1914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최초의 전기 신호등이 설치되었다.
현재 신호등의 빨강은 '멈추어라', 노랑은 '주의하라', 파랑은 '가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약속된 교통법규는 모든 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호등의 성실함보다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정직성'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빨강, 노랑, 파랑이 요구하는 정직성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신호는 누군가의 행동 방향을 명령하는 단순 기호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절대 법칙이기 때문이다.



시간

하루, 이틀, 누구에게나 정직한

현재까지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인 BC 2200년에 '월렌돌프'의 석상에서 비만인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병으로만 여겼던 비만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비만은 에너지 섭취가 소비보다 많은 에너지 불균형의 결과로, 우리는 비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 활동량은 극도로 적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비만은 성인병을 부르고, 성인병에 걸리면 약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건 어떨까. 디지털 체중계의 1kg 차이를 간과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숙명적 고민인 비만과 멀어질 수 있다. 체중계는 "살이 찌고 있음"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주는 최고의 조언자이다.

인간은 시간을 하나의 신으로 숭배했다. 신의 형상이라고 이해하기도 했고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줌으로 여기기도 했다. 우리가 시간을 수학적인 틀로 이해하고 물리현상을 서술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건 근대의 일이다. 이는 뉴턴에 의해 확립됐으며,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수백만 년 역사 가운데 길게 봐도 400년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1초, 1분, 1시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년 동안 같은 속도로 달려왔다.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정확히 24시간이 채워져야 하루가 가고, 365일이 채워져야 1년이 간다. 이렇듯 정직한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양이 주어진다.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한 매우 정직하다.

카드명세서

부정하고 싶지만 정직한 사용 내역

신용카드라는 개념은 1887년에 에드먼드 벨라미가 발표한 소설 'Looking Backward'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78년 외환은행에서 비자카드 발급업무를 개시하면서 부터이다.
신용카드는 소비자 신용의 일종이다. 카드사와 계약한 회원은 지출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용도에 따라 금액에 제한 없이 소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카드 소비의 매력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치명타를 날리기도 했다. 돈 개념 없이 마구 '꺄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 것. 그들은 카드사가 매우 '정직하게' 받아낼 것이란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지금쯤은 다달이 날아오는 카드내역서의 정직함을 인지했을 것이다.

체중계

500g이 늘어도 정직하게 경고



카드사용내역		포인트/할인내역
08월에 입금하실 총금액은 545,497원 입니다.		
구분	금액(원)	합계(원)
상환내역	0	0
전월미납카드대금	0	
전월미납대금이자	10,000	
연회비	540,150	

Singapore Facts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의 힘, 정직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싱가포르의 21세기 비전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싱가포르 정부의 정직한 국가경영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경쟁력 세계2위라는 신화를 가능하게 한 그들의 정직성은 싱가포르를 ‘다국적기업들이 신뢰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본부’로서 탄탄히 키워가고 있다.



동방의 용광로를 탄생시킨 것은 무엇?

싱가포르는 지정학적인 면에서 매우 작은 나라지만 국제무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19세기 초 영국의 스탬포드 래플스 경(Sir Stamford Raffles)이 첫발을 내디딜 때만 하더라도, 인구 100여명 안팎의 한가로운 어촌에 불과했다. 그러나 18~19세기의 서구 해상강국에 의한 식민지화와 막대한 노동력을 수반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의 확대로 외래인구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비록 식민계층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것은 후에 싱가포르를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 특징짓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소위 ‘동방의 용광로’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1963년 영국에서 독립할 때만 해도 사회적 혼돈과 무질서, 인종 분쟁과 극도의 빈곤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나라였으나 불과 50년 만에 국제경쟁력 2위, 경제자유도 2위, 부패가 없는 국가 5위로 성장한 싱가포르. 싱가포르를 변화시킨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싱가포르의 경제

과거 싱가포르가 처했던 상황은 우리나라가 처했던 환경과 흡사했으며, 두 나라의 정치 리더십과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강력한 1인 통치체제라든가,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그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싱가포르는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소득창출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한 국가 기간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이러한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경영을 책임지는 공공조직으로서 분명한 통치이념을

확립하고 공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싱가포르의 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한다.

싱가포르의 저력은 정직한 국가문화

싱가포르의 저력은 정직을 기반으로 한 법과 행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공무원에게 ‘부정부패방지법’을 적용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처벌한다. 공직박탈은 최고 5년까지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의 벌금(2가지 형벌 동시 가능)을 물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정부국책사업계약과 관련하여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7년까지 징역을 살아야 한다. 뇌물로 받은 돈은 1989년에 제정된 ‘부당이득몰수법’에 의해 고스란히 내놓아야 하며 연금과 각종 혜택도 박탈된다. 또한 공무원은 임용 당시의 재산은 물론 매년 증가되는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패에 빠져들지 않도록 민원인으로부터 그 어떤 향응이나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개발경제 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법으로 차단함으로써 관료의 부패와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는 공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고하게 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했다. 이렇듯 국가 전반에 확산된 정직한 문화는 싱가포르의 성장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었고, 이는 1960년대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대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50년 만에 국제경쟁력 2위, 경제자유도 2위, 부패가 없는 국가 5위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동남아의 작은 어촌에서 ‘아시아의 스위스’로 성장한 싱가포르를 통해, ‘정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세아인 모두가 우리의 첫 번째 핵심가치 ‘정직’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미국시장 개척자 Pusan Pipe America(PPA) 설립



01 PPA 설립 신문기사 (1978년 10월 4일 매일경제) 02 Pusan Pipe America 전경(1978년)

03 Pusan Pipe 설립 무렵 미국의 수요가 방문 (좌부터 현 공원일 상임고문,故 이운형 회장, 김시원 상임고문, 이철희 전 사장, 이병준 SSA 회장, 김흥기 SSA 사장)

SeAH's Corporate History

부산파이프, 미국시장의 물꼬를 트다

미국의 강관시장은 1950년부터 일본산 강관이 수입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일본산이 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일본산 강관은 대부분 일본 종합상사에 의해 수입되었는데, 부산파이프 역시 수출 초기에는 일본의 종합상사를 거쳐야만 했다. 이후 미국의 수입업자 및 실수요자들과 직거래를 시작한 부산파이프는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 전역에 탄탄한 거래망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8년 포항공장의 SRM 설비 신설로 국내 최초로 유정용 강관을 생산한 이후에는 부산파이프의 대미 강관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대됐다.

미국 LA연락사무소 개설

부산파이프는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며 그동안 외국 종합상사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던 수출방식에서 탈피, 미국시장 개척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연락사무소 개설에 나섰다. 약 1년 동안 지역 선택을 놓고 숙고한 결과 물류시설, 날씨, 노동력, 지리적 여건이 우수한 LA가 최종 낙점됐다. 1977년 11월 개설된 부산파이프 LA연락사무소는 제품 클레임 해결, 시장정보 수집, 신제품 개발과 본사 업무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실수요자 및 강관 판매 회사들과 직거래의 가능성을 조사했다.

미국시장 개척자 PPA 설립

LA연락사무소의 성공적 개설에 힘입은 부산파이프는 현지법인으로 개편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여러 시장 상황을 종합한 끝에 1978년 8월 15일, 본사 제품의 직수입 판매와 수출입을 전담할 현지법인 Pusan Pipe America(PPA·현 SeAH Steel America)를 설립했다. PPA는 기존 거래처와의 마찰을 피하면서 강관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고, 특히 미 정부의 철강수입 억제정책 등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현지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갔다.

SeAH

세아를 나타내는 색상, 컬러 시스템 (COLOR SYSTEM)

세아를 나타내는 보조 색상

세아 그레이와 세아 오렌지 외에도,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아 라이트

그레이(SeAH Light Gray)’, ‘세아 골드(SeAH Gold)’, ‘세아 실버(SeAH Silver)’ 세 가지 색상을 보조 컬러로 지정했다. 보조 색상은 다양한 인쇄 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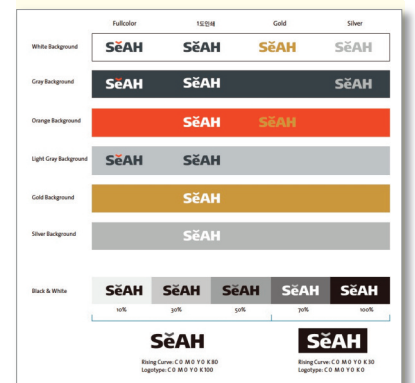


세아 라이트 그레이(SeAH Light Gray), 세아 골드(SeAH Gold), 세아 실버(SeAH Silver)

세아 그레이(SeAH Gray), 세아 오렌지(SeAH Orange)

컬러 사용규정

세아 CI는 별도의 배경 색상이 들어가지 않은 백색 위에 고유한 색상으로 전개되는 별색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 매체의 특성과 기타의 사유로 배경 색상 위에 적용될 때는 하기의 기준에 따라 표현방법을 달리한다.



White Background, Gray Background, Orange Background, Light Gray Background, Gold Background, Silver Background, Black & White



100년 기업 세아를 향한 출발 세아타워 오픈 기념식

세아는 2012년 12월 통합사옥 세아타워에 입주한 이후, 지난 반세기 역사를 정립하고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아관을 포함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약 8개월의 준비 끝에 2013년 7월 22일 세아타워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아의 역사와 감성을 담다

2013년 7월 22일 오전 10시 세아타워의 오픈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오픈 기념식에서는 약 8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연 세아 커뮤니티 허브도 공개됐다. 세아 커뮤니티 허브는 '100년 기업 세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역사를 정립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다.

세아 커뮤니티 허브는 세아타워 4층과 5층 두 개 층을 활용했다. 4층은 1960년 창업부터 2013년 현재까지 세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아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다목적 오디토리움, 체력 단련실인 피트니스 센터, 교육장, 미팅룸이 있다. 5층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세아(Café SeAH)와 야외 테라스가 마련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층 로비를 비롯해 세아타워 곳곳에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 세아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반영하였다. 세아타워 오픈 기념식은 세아홀딩스 이순형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약 60분 간 로비와 세아 커뮤니티 허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세아타워 오픈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에너지를 얻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아관을 둘러보는
이순형 회장



오픈을 축하하는
케익 커팅

SeAH Tower open



카페 세아
(Café SeAH) 전경



카페 세아(Café SeAH)에
모인 임원들이 축하를 담아
건배를 하고 있다.

Let's Take A Look Around!

로비 & 세아 커뮤니티 허브 소개

세아타워가 오픈 기념식에 맞춰 새 단장을 마쳤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로비, 세아의 53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아관, 다목적 강당 오디토리움, 체력 단련실인 피트니스 센터 등 새롭게 문을 연 공간들을 소개한다.

로비

세아타워 1층에 위치한 로비는 국내외 내빈을 맞이하는 세아의 첫 얼굴이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환하게 쏟아지는 햇빛이 밝고 역동적인 기업 세아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

Lobby



SeAH Hall

세아관

1960년 창업 시작부터 2013년 현재의 위상까지 세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곡선의미를 살린 원형 공간이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선사한다.



Auditorium

오디토리움

132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한 다목적 강당으로 공연장의 분위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Fitness Center



피트니스 센터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한 체력 단련실로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 운동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벽,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Café SeAH

카페 세아(Café SeAH)

세아관 옆에 위치한 계단으로 올라오면 아늑한 북 카페 느낌의 카페 세아가 반긴다. 직원 간 교류 및 방문객들과의 미팅에 활용되는 공간이다.



COOL SUMMER VACATION

세 남자와 떠난 시원한 바캉스!

세아 M&S 생산팀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했다. 계곡으로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이 계절, 여름보다 더 뜨거운 날들을 보내는 숨은 주역들이 있으니 바로 세아 M&S 생산팀이다. 24시간 가동되는 설비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생산팀의 세 남자들을 위해 편집실에서 시원~한 선물을 준비했다.

팔빙수로 여수의 무더위를 열려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쬘던 7월의 마지막 날, 가수 버스커 버스커가 부른 '여수 밤바다'를 들으며 전남 여수에 도착했다.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를 건네는 진분홍색 배롱나무, 웅기종기 모인 주택들이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도시, 여수. 고개를 돌리면 펼쳐지는 시원한 바다와 푸른 하늘이 가슴을 상쾌하게 열어 주었다. 여수공항에서 차로 약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장소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세아 M&S. 오늘의 주인공은 세아 M&S를 책임지는 생산팀 강문수 팀장과 김인호 과장, 김승모 대리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설비를 관리하느라 더위에 지쳐 있을 세 남자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미션은 무더위를 날려버릴 팔빙수 만들기! 제한된 시간 안에 곱게 얼음을 갈아 갖가지 재료를 올린 먹음직스러운 팔빙수를 완성할 경우, 녹음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타임'도 제공된다. 미션 성공을 향한 세 남자의 눈빛!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뜨끈뜨끈하다.

생산팀이 만든 팔빙수, 살아 있네~

세 남자의 팔빙수를 향한 열정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이었을까.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말았다. 빙수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얼음이 녹아버리고 말았던 것. "이러다가 맛도 못 보고 다 녹아 없어지겠다"고 울상인 김승모 대리를 다독이던 김인호 과장, 머리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전구가 켜졌다.

1
최고의 팔빙수를 향해
장인의 손길을 보여준
M&S 생산팀 세 남자들.



1



세아 M&S
생산팀의
휴가 계획

강문수 팀장

계곡에 발 담그고
수박을 먹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힐링해 보렵니다.
휴가야, 어서 와라~



김인호 과장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입니다.



김승모 대리

가족과 서해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에요.
서해 바다에서 저의
숨겨진 기타 실력도
뽐낼 거예요~

“그럼 세 사람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건 어때? 김 대리는 얼음 갈기, 나는 연유 뿌리기, 팀장님은 단팥을 올리기로. 그럼 얼음이 녹기 전에 빙수를 완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생산팀의 브레인, 김인호 과장이야.”

김인호 과장의 제안에 따라 세 사람은 즉시 자동분업화(?)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고의 빙수를 향한 장인의 손길을 보여주던 세 사람. 이제는 자리를 잡고 앉아 각자 빙수 그릇에 먹음직한 견과류와 새콤달콤한 과일, 달콤한 쿠키를 얹으면서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다.

“아, 팀장님~ 혼자 맛있는 재료만 쏙 털어 가십니까~?”

“에헤이, 이 사람. 연장자한테 양보 좀 해~”

“팀장님은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견과류 말고 건포도 위주로 드시죠.”

세 사람 모두 손이 어찌나 큰지 그 많던 얼음이며 팔, 과자, 견과류가 순식간에 바닥이 나버렸다. 서로 ‘내가 만든 빙수가

제일 맛이 좋다’며 옥신각신하더니 어느새 핸드폰을 꺼내 인증샷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내 폰이 최신폰이라 더 화질이 좋다’, ‘내 폰은 1,300만 화소가 넘는다’며 서로 질 세라 자랑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초등학교 개구쟁이들 같아 웃음이 터졌다.

첫 돌을 맞은 생산팀의 저력

세아 M&S는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반도체칩 등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철금속 광물인 ‘몰리브덴’ 광석을 가공 · 생산하여 산화몰리브덴, 산화몰리브덴 브리켓, 페로몰리브덴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수입에 전량 의존하던 몰리브덴 가공 제품을 세아 M&S에서 생산하게 됨으로써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몰리브덴 전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세아 M&S 생산팀은 생산량 증대와 원가절감에 힘쓴 결과 2012년 공장 증량 공사 완료 후 전년도 대비 약 80%의 생산량 증대라는 쾌거를 이루며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2012년 7월에 신설돼 세 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몰리브덴 제조의 원료, 설비, 인원과 같은 생산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고 있기에 단합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생산팀. 이제 막 첫 돌을 맞은 팀인 만큼, 3인방이 기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 단계씩 발발을 다져가고 있다. 강문수 팀장은 “2012년 설비 증설 이후 설비 안정화까지 밤낮없이 묵묵히 고생해준 팀원들과 생산팀 전문직 선임 및 사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올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돌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인돌공원에서의 힐링 타임

팔빙수 만들기에 성공하고 맛있게 시식까지 끝낸 세 남자들. 미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근처에 위치한 여수 고인돌공원으로 향했다. 눈이 시린 푸른 녹음 위에서 팀원들과 ‘힐링 타임’을 즐기니 이곳이 무릉도원이 아닌가 싶다. 이 기쁨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타 연주 10년 경력에 빛나는 김승모 대리가

코드를 잡았다. 즉시 “뚝바로 연주해라” “발로 연주하느냐”와 같은 아유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짓궂은 장난 속에 숨겨진 애정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올해 5월, 창립 이래 최대의 생산량을

달성한 저력을 보여준 세아 M&S 생산팀. 그 어떤 것을 투입하더라도 전부 옹해해서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빛나는 옹광로처럼, 뜨거운 저력으로 세아 M&S를 책임지는 파수꾼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2
팔빙수의 백미는 달콤한 단팥이죠!

3
M&S 생산팀이 완성한 팔빙수, 살아있네!

4
우리는 팔빙수 한 숟가락도 나눠먹는 사이.

5
여름휴가를 향해 점프!

6
고인돌공원에서 힐링 타임을 즐기는 M&S 생산팀 세 남자들



‘오페라를 사랑하는 철강 기업’ 세아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회사 내 오페라 문화를 확산시키고 임직원이 오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박의숙 사장이 직접 강연하는 <Let's go 오페라> 행사를 개최한 것.
오페라 강연 및 공연감상, 치킨과 생맥주가 어우러진 이벤트도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오페라와 떠나는 여행

Let's go 오페라

오페라와 떠나는 여행, Let's go 오페라

7월 22일 저녁, 130여명 임직원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이들이 다다른 곳은 세아타워 4층에 오픈한 오디토리움. 이 날 오디토리움에서는 개관을 기념하는 첫 행사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박의숙 사장이 직접 강연하는 <Let's go 오페라>가 바로 그것. <Let's go 오페라>는 ‘오페라를 사랑하는 철강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임직원들이 오페라를 쉽게 배워보고 감상함으로써 오페라를 진심으로 즐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이다.

총 132석 규모의 오디토리움은 각 사 임원단을 비롯한 임직원들로 자리가 빠르게 채워졌다. 세아타워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문화행사인 만큼, 모두가 설레고 기대되는 표정으로 강연의 시작을 기다렸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라는 박의숙 사장의 물음에, 모두가 “네!” 경쾌한 대답과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첫 순서로, 지난 3월 영면한故 이운형 회장의 추모영상이 상영됐다. 오페라의 든든한 후견인이었던故 이운형 회장의 업적과 함께, 지난 6월 19일 ‘마리아 칼라스 홀’에서 대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100일 추모음악회 장면들이 담긴 영상이었다. 오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故 이운형 회장의 뜻을 본받자는 메시지로 영상이 마무리 되자 장내는 금세 숙연해 졌다.

영상 상영 후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Giuseppe Fortunio Francesco Verdi, 1813~1901)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대표작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가 강연작으로 선정됐다. 첫 강연인 만큼, 콘텐츠는 청중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



게 준비됐다. ‘아리아’, ‘레치타티보’ 등 기본적인 오페라 용어와 관전 포인트 설명이 진행됐고, ‘라 트라비아타’의 작품 소개가 이어졌다. 원작소설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 프리마돈나 ‘마리아 칼라스’와 그녀의 숨겨진 에피소드 등도 함께 어우러져 강의는 생동감을 더했다.

“프리마돈나(Prima Donna,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는 ‘퍼스트레이디(First lady)’라는 의미에요. 자유로운 마돈나가 아닙니다.”, “‘라 트라비아타’의 1막에 등장하는 ‘축배의 노래(Brindisi)’는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인데요, 사실 노래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매우 문란한 내용으로 일종의 권주가입니다.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의 이탈리아 판이지요.” 박의숙 사장의 재미있는 설명에 객석에서는 실 새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피스의 소설 ‘동백꽃 여인’을 각색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베르디의 작품들 중에서도 단연 백미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특히, ‘지난 날이여 안녕’, ‘언젠가 그 아름답던 날’ 등의 주옥같은 아리아들로도 유명하다.

객석에 앉아 있던 임직원들은 프로그램 내내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모를 해가

며 듣는 학구파형,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호응하는 방청객형, 영상을 보며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심취한 감성파형 등 제각기 다른 관람 스타일로 경청하였다.

약 1시간 30분의 강연회가 끝나고, 5층 Café SeAH와 야외정원에서는 치킨과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특별 이벤트가 이어졌다. 아름다운 Café SeAH와 야외정원에 둘러앉아 출출함과 더위를 한방에 날리고, 타 부서 및 관계사 동료들과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강연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오페라가 쉽게 다가왔다.”, “동료들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라고 <Let's go 오페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7월에 처음으로 시작된 <Let's go 오페라>는 높은 호응에 부응하여 임직원을 위한 연중 문화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8월 29일은 직원들의 배우자와 연인, 친구를 초대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스페셜 행사로 진행된다. 세아인들 모두가 오페라를 진심으로 아끼고, 향유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외쳐본다. “Let's go 오페라!”

세아의 힘찬 도약을 위한 준비

CBS 추진 준비 워크샵

CBS(Colfax Business System) Workshop

세아는 산업재 시장에서 신속한 고객대응과 효율적인 제조 방식으로 성장을 이룬 Colfax 사의 경영 시스템 'CBS(Colfax Business System)'를 도입하기 위해 7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CBS 이해 제고 및 실행 준비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CBS Workshop

PROLOGUE



CBS 도입 배경

글로벌 경제의 둔화와 국내시장 포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으로 시장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철강 업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으며, 2013년 역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어 세계 철강산업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세아는 산업재 시장에서 신속한 고객대응과 린 제조방식(Lean Manufacturing*)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Colfax 사의 경영 시스템(이하 CBS·Colfax Business System)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세아 ESAB이 CBS를 최초 도입했으며, 하반기에는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해덕스틸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후 평가와 협의를 거쳐 세아제강과 세아베스틸을 포함한 각 계열사의 CBS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CBS 단계는 Daily Management(과제관리) → Kaizen(개선) → Policy Deployment(정책

전개)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1단계인 CBS Daily Management를 우선 도입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핵심성과지표) 관리와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CBS 이해 제고 및 실행 준비를 위한 워크샵

CBS에 대한 담당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계열사 내 CBS 적용 여건 조성 및 조기 활동 착수를 위해 7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CBS 추진 준비 워크샵이 개최됐다. 행사 준비는 CBS 추진 TF팀인 세아홀딩스 미래전략파트, 세아 ESAB 혁신사무국이 맡았으며,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해덕스틸의 기획팀·혁신·KPI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해덕스틸의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8월에 있을 모의 KPI 점검회의를 준비하게 된다.

2일차 CBS 설명회에 참석한 이순형 세아홀딩

스 회장은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고 세아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CBS를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인이나 기업이 발전하려면 과거와 다른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열심히 하자’는 차원을 넘어,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아 ESAB,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해덕스틸의 대표이사 및 담당자들은 각 조직에서 CBS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린 제조방식(Lean Manufacturing)이란?

도요타의 생산시스템에서 나온 개념으로, 적은 원가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해 효율성을 높이는 린 제조방식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Kaizen(개선) ② 장기적 관점 ③ 낭비 제거 ④ 단순화

WORKSHOP

행사 이모저모

1일차 워크샵 프로그램 - CBS 실습

1일 차 워크샵은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세아홀딩스 미래전략파트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인 'Beer Game' 게임을 활용하여 참석자들이 CBS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어 세아 ESAB의 'CBS 적용' 발표를 통해 실무에서 겪었던 생생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KPI 도출·조정'은 CBS 활동에서 관리하게 될 성과지표들을 도출하는 주요 선행으로, 실효성이 높은 KPI로 다듬는 데 주력했다. 참석자들은 세아 ESAB의 KPI 조정 과정을 공유한 뒤 계열사 간 집중토론을 통해, 각 계열사의 특성을 고려한 KPI 항목을 도출했다. 'Bowling Chart 실습'에서는 시범 작성한 Bowling Chart를 토대로 개선점을 제안하며 각 계열사의 Bowling Chart의 완성도를 높였다. CBS 교육의 기본이자 핵심인 'Root Cause &



Countermeasure(이하 RCCM)'은 이론교육과 실습·토론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세아 ESAB이 Colfax로부터 받은 내용 및 7개월 간의 실습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발표와 피드백, 집중토론으로 RCCM 실습을 완

성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샵에 참석한 세아특수강 혁신추진사무국 이태원 파트장은 "CBS는 우리 회사를 혁신적 성장으로 이끌 훌륭한 시스템이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겠다"며 교육 소감을 전했다.

2일차 워크샵 하이라이트 - CBS 설명회

워크샵의 하이라이트는 2일차에 진행된 CBS 설명회였다. 설명회는 세아홀딩스 양홍남 경영고문(TF장)의 CBS 총론으로 문을 열었다. 세아홀딩스 이순형 회장, 세아베스틸 이승휘 부회장 및 각 계열사 대표, 담당 임원이 자리에 참석했다. 양홍남 경영고문은 CBS의 정의, 배경과 목적, 구성요소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 후 "CBS란 단순한 경영 툴이 아닌 '문화'이며, CBS의 경쟁력은 경영진의 강한 확신과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적용사례 발표에서 세아 ESAB 유덕상 대표는 "세아 ESAB에서 계열사 최초로 CBS를 도입한 이후 계속해서 PD(Policy Deployment·정책 전개)에 대해 고민하고 구상했다"고 서두를 연 후 "CBS를 약 7개월 간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업무와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으며, 조직 내 긴밀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매달 결산 직후 KPI 리뷰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문제점과 대책을 즉시 찾아낼 수 있었고, 일일 액션 로그를 만들어 대표-임원-팀장이 공유함으로써 일처리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각 계열사 대표는 CBS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이순형 회장은 CBS 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대를 전달했다. CBS TF팀은 CBS 실행에 대한 책임과 경영진

의 기대를 동시에 느끼며 향후 계획 수립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CBS 추진 준비 워크샵은 세아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며 종료되었다.



CBS(Colfax Business System)란?



CBS(Colfax Business System)란 미국의 Colfax가 활용한 경영 툴을 의미한다. 경영진의 강력한 확신을 바탕으로 도요타의 '린 제조방식(Lean Manufacturing)'을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까지 확대·적용하여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비즈니스 시스템이다.

Colfax의 모회사인 Danaher는 도요타의 린 제조방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후 회사 전체로 확산시켰다. Danaher는 1980년대 성공적인 M&A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1990년대에는 생산 뿐 아니라 유통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으며, 2000년대에는 산업의 전망성을 본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세아는 시장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품질, 시간, 비용 및 성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BS 도입을 추진했으며, 세아 ESAB은 2012년 하반기 시범 적용 후 2013년부터 전사적으로 실시하여 현재는 개선활동(RCCM)까지 포함한 '과제관리' 단계를 마쳤다. 세아는 2013년 하반기 CBS 교육을 시작으로 2014년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해덕스틸의 실행단계를 거쳐 2015년에는 전 계열사에 CBS 전파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세아홀딩스 양홍남 경영고문(CBS TF장)

TF팀을 운영하며 느낀 점

TF팀원들의 열정이 대단하며 CBS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주역인 TF팀원들을 보며, 세아의 미래가 무척 밝다고 느꼈습니다.

TF팀의 향후 계획 및 목표

기초교육 후 CBS 방식의 모의 월별 경영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CBS Facilitator(학습 촉진자)를 양성하여 CBS 적용범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CBS는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아를 지속적으로 성장케 할 경영방식이자,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할 검증된 경영 툴입니다. CBS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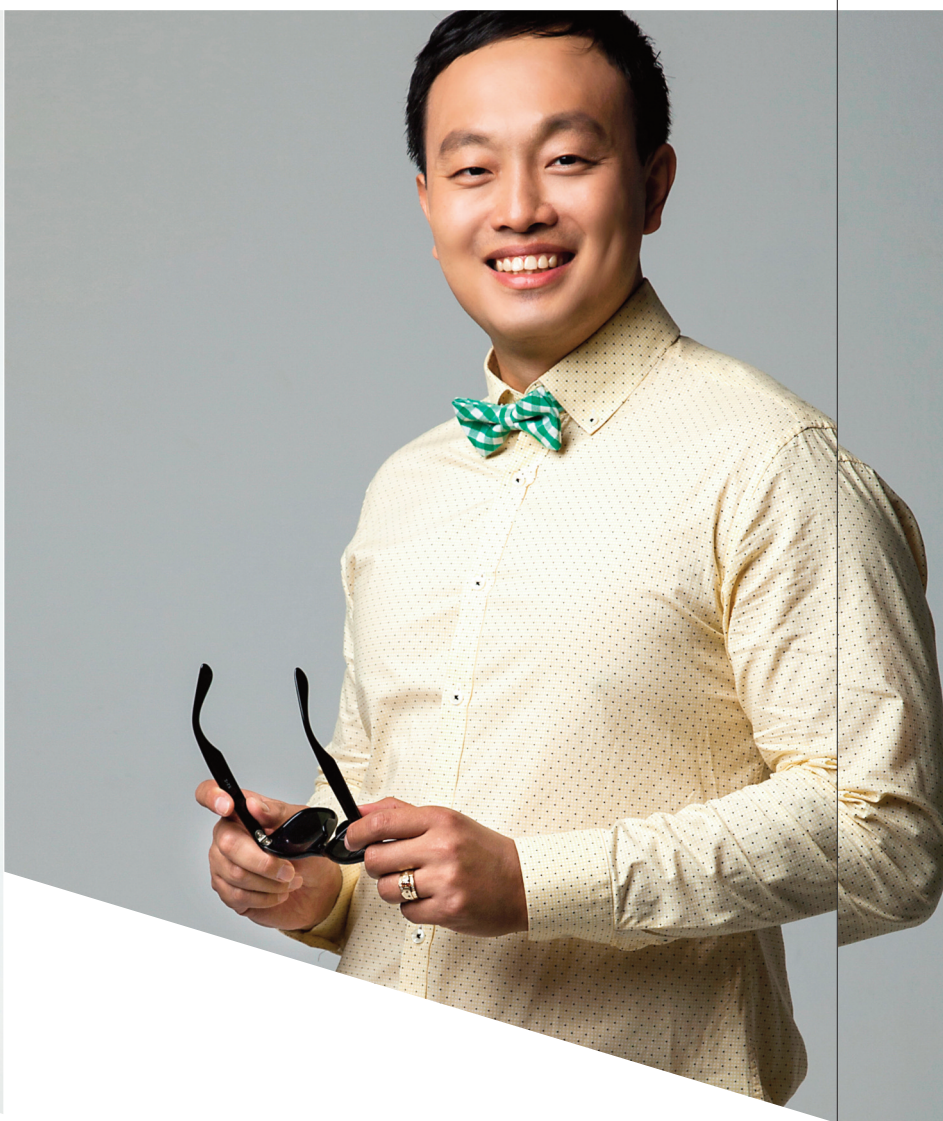




He's the Man

근육보다 마음이 더 멋진
‘진짜 사나이’

세아특수강 봉강파트 금기철 대리



상남자가 가진 반전의 매력

최근 유행중인 신조어 중 ‘상남자’라는 단어가 있다. ‘상남자’란 ‘남자다운 남자’, ‘남자 중의 남자’란 뜻으로, 금기철 대리와의 첫 만남에서 받은 느낌이 바로 ‘상남자’였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전직 태권도 선수다운 묵직한 풍채, 거침없이 던지는 돌직구와 “오늘의 나를 죽여야 내일의 내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살벌(?)한 좌우명까지. 다소 강해보였던 첫 모습과 달리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시종일관 해맑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금 대리는 “이게 다 웨딩촬영 경험에서 다져진 노하우”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세아가족 표지 모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금기철 대리. 본인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세아특수강이 걸어온 역사가 이번 호 전체 테마인 ‘정직’과 잘 매치되었기 때문인 것 같고, 회사가 지켜온 ‘정직’한 신념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가라는 의미에서 뽑힌 것 같다”며 쑥스럽게 답했다.

금기철 대리는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새벽 6시 40분

에 도착해 일과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현장에서 “공정관리 담당자가 우리와 함께 해줘서 참 고맙다”는 칭찬도 받고, 생산 근무자들과의 사이도 돈독해져서 이제는 6시만 되면 절로 눈이 떠진다고 했다. 오전에는 전날 생산량 확인과 불량률 분석, 금일 설비 스케줄을 편성하고 오후에는 긴급 납기 출하에 대응한다. 24시간 하루도 쉼 없이 설비가 가동되기 때문에 매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금기철 대리. 전 공정이 원활이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하는 금 대리를 보며, ‘이것이 바로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 이름처럼 금속 분야를 일으키겠습니다!

금기철 대리는 양복보다 작업복을 좋아했고, 여름에는 땀 흘리고 겨울에는 떨면서 일하는 직업에 동경을 갖고 있었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은 여름과 겨울 두 계절의 온도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니, 그의 로망이 100% 이루어진 셈이다. 올해로 입사 8년 차에 접어드는 금기철 대리는 신입사원 면접에서 “제 이름 금기철(金起鐵)에는 금도 있고, 쇠도 있습니다. 금속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금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철입니다. 세아특수강에 입사해서 제 이름처럼 금과 철을 일으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면접관을 폭소하게 만들었다. 그 당찬 포부대로 금기철 대리는 현재 세아특수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엑神(엑셀의 신)’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열처리 공정 분석 프로그램’과 ‘열처리 그래프 예측 프로그램’을 엑셀로 개발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며, 최근에는 설비 LOSS 구조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도 만들어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금기철 대리가 아이디어를 낸 ‘영업 납기 시스템’은 곧 스마트폰 앱으로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기철 대리는 2012년에는 세아특수강 포항 공장 개인성과 개선 프로젝트에서 1위를 달성했고, 2013년에는 세아특수강 모범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 이름 금기철(金起鐵)에는 금도 있고, 쇠도 있습니다. 금속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금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철입니다. 세아특수강에 입사해서 제 이름처럼 금과 철을 일으키고 싶습니다!”라는 포부대로 금기철 대리는 현재 세아특수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세아특수강
유을봉 대표와의 인증샷

금기철 대리는 유을봉 대표에게 “인증샷 한 장만 같이 찍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고, 흔쾌히 허락한 유을봉 대표 덕분에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다.



세아특수강 연관검색어 ‘금기철’을 목표로

금기철 대리는 “봉강파트 뿐만 아니라 세아특수강 전체가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이라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올해 5월, 유을봉 대표와의 간담회와 금기철 대리의 대화동기 모임이 겹친 일이 있었다. 금 대리가 “오늘은 우리회사 대표님과 식사 약속이 있어 모임에 못가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친구들은 “대표님이 왜 너랑 저녁을 먹냐,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오라”며 아우성이었던다. 금기철 대리는 유을봉 대표에게 “친구들이 제 말을 안 믿으니 인증샷 한 장만 같이 찍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고, 흔쾌히 허락한 유을봉 대표 덕분에 의심도 불식시키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다.

금기철 대리는 “좋은 상사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며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명기 공장장(이사)은 품질 테스트에 실패할 때도 “한 번 더 해봐, 사고치는 게 네가 할 일이고 팀장과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야!”라고 독려해주었다. 이직상 봉강파트장(현 기술개발팀장)은 봉강파트의 ERP 전산화 개발이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협력 부서를 찾아가 설득시켰으며, 윤종태 팀장은 팀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리더라며 선배들에 대한 칭찬이 끝이 없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서로를 위하는 조직이 우리 세아특수강”이라고 자랑하는 금기철 대리. 그의 목소리에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 3월은 금기철 대리의 둘째 출산예정일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납기 경쟁력을 높일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앱 개발, 신 ERP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또한 세아특수강 봉강파트를 국내 1위가 아닌 세계 1위로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차근차근 목표를 달성해 5년 후에는 세아특수강 연관검색어로 ‘금기철’이라는 단어가 등록되도록 하겠다는 금기철 대리. 봉강파트의 ‘돌직구 승부사’답게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펼쳐주길 기대해 본다.

아름다움을 사랑하신 그 님을 그리워하며...

故 이운형 회장
100일 추모 음악회

故 이운형 회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50여 일이 지났다. 故 이운형 회장 영면 100일을 맞았던 지난 6월 19일 저녁, 추모 음악회 <Adagio for the Departed>가 마리아 칼라스 홀에서 개최됐다. 故 이운형 회장이 생전에 사랑했던 음악이 연주되자 객석은 진한 감동과 여운으로 물들었다.

Adagio for the Departed



아름다움을 사랑하신 분.
진정으로 사랑을 품고 사셨던 분.
사랑과 봉사, 헌신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셨던 분...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모아
<Adagio for the Departed>를 열다.



故 이운형 회장의 영면 100일을 맞았던 지난 6월 19일 저녁, 삼성동에 위치한 소규모 공연장 '마리아 칼라스 홀'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였다. <Adagio for the Departed>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대원 문화재단 김일곤 이사장과 '뮤직앤컬처' 구성원들이 故 이운형 회장을 추모하고, 고인이 사랑한 음악을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음악회이다. 예술을 사랑한 고인의 뜻에 공명하는 내빈들의 참석으로 객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고인을 위한 아다지오'라는 의미를 지닌 <Adagio for the Departed>. 아다지오(Adagio)란 음악의 빠르기를 일컫는 용어로 '천천히', '느리게'란 뜻을 가지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대원문화재단 김일곤 이사장은

"추모 음악회는 국가 영웅이나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인데, 故 이운형 회장의 추모 음악회가 마련된 것은 고인의 인생과 족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나타냈다. 이어 "故 이운형 회장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평화롭고 아름다운 감정을 상징하는 '아다지오'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Adagio for the Departed>라고 지었다"라며 추모 음악회의 의미를 전달했다.

음악회는 김일곤 이사장의 곡에 대한 소개와 5~7분 가량의 연주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프닝으로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을 편곡한 첼로 2중주가 연주된 후, 故 이운형 회장이 즐겨 들었던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4번 2악장이 이어졌다. 이 곡은 이운형 회장이 핸드폰에 저장할 정도로 좋아했던 음악이자, 베토벤의 서정미를 아다지오로 표현한 걸작이라 손꼽힌다. 참석자들은 고인을 생각하며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에 젖어들었다.

故 이운형 회장 추모 음악회는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음악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

리를 빛냈다. 클래식계의 떠오르는 샛별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일본에서 클래식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클래식계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피아니스트 임동혁,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 주연선 등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모 음악회에 참석해 장내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가 죽기 2개월 전에 완성한 작품이자 실내악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잘 알려진 현악 5중주 2악장 아다지오가 연주됐다. 불세출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천국의 문에 들어선 것 같다'고 극찬한 현악 5중주 2악장은 죽음을 앞둔 슈베르트의 평정심과 강한 정신세계가 녹아든 곡이다. 죽음에 대한 감정이 절규하듯 이어지다가 편안한 안식으로 마무리되자 뜨거운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린 <Adagio for the Departed>. 故 이운형 회장은 우리 곁을 떠나고 없지만, 그가 사랑한 아름다운 선율은 우리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룹뉴스

그룹 홈페이지 리뉴얼



8월 1일 세아그룹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됐다. 새로 구축된 홈페이지는 리뉴얼된 CI를 적용한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세아 고유의 라이징 커브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디테일을 강조했으며, 12개의 날씨 정보도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또한 이번 개편에 따라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디바이스 기기에서 홈페이지 구현이 가능해졌다. 한편, 그룹 홈페이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해 웹 접근성을 보완했다.

2013 SPEC 교육 실시



2013 SPEC 교육이 실시됐다. SPEC은 'SeAH Pre-Executive Course'의 약자로, 선발된 예비 임원(차·부장)을 대상으로 팀 과제 수행과 경영이론 집중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아, 고려제강, TCC동양에서 선발된 28명은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6주에 걸쳐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단기 MBA 과정을 이수했다. 업무와 병행되는 4인 1조 팀 프로젝트는 6월 18일부터 진행되었으며, 오는 10월 16일 완료될 예정이다.

세아제강

배식 봉사활동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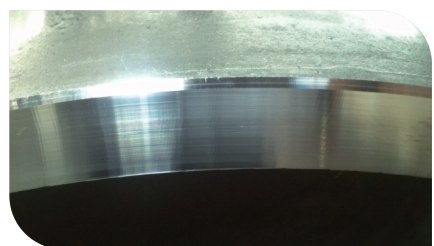
세아제강이 지역 노인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재개했다. 7월 11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본사 직원 15명은 세척조, 배식조, 홀서빙조로 나뉘어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펼쳤다. 5월 8일 첫 시행 후 6회를 맞이한 배식 봉사활동은 총 9개조가 참여, 연말까지 각 조별로 2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세아제강은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포항공장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



포항공장이 6월 18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예선에 참가했다. 포항공장 생산2팀 중경1공장 명품 분임조는 'KSA 품질경영추진본부 추천 우수 소그룹'으로 선정되어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업의 전국체전'이라고도 불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시·도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한편, 본선은 8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포항공장 고등급 제안 심사를 통한 문제 해결
7월 12일 포항공장 생산2팀 중경2공장 소속 이정중 사원이 제안한 'PM53 면취기 절삭면 진동



개선 방안'이 생산 업무에 큰 효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중 사원의 제안은 90° 카트리지 홀더 조립부 보안을 통해 면취 시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공장은 3회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연간 약 8,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재사업본부 고객사 실무자 워크샵 시행



판재사업본부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고객사 실무자 워크샵'을 시행했다. 군산판재공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워크샵은 35개 고객사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시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판재사업본부는 고객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판재공장 사랑의 봉사활동 실시



6월 29일 군산판재공장의 직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21명의 직원들은 노인 요양시설 '함께하는 공동체'를 방문해 제초작업, 비료 나르기, 시설 청소 및 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군산판재공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순천공장 4블럭 산세공장 신축공사 완료



2013년 3월에 착공한 순천공장 4블럭 산세공장이 완공됐다. 산세공장 내 설비는 전처리기 1기, 산세조 2기, 수세조 1기, 온수조 1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수처리능력은 시간당 25톤 이상이다. 4블럭 산세공장은 8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STS 강관 완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아베스틸

2013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여행



5월 29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세아베스틸과 함께하는 2013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여행'이 개최됐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연은故 이운형 회장이 보여준 오페라에 대한 열정과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군산의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았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협약 체결



세아베스틸이 6월 25일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아베스틸 조기찬 지원본부장, 양연숙 군산고용노동지청장 등 관계 기관 및 회사 대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협약은 서면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문화 정착 등이 포함됐다. 세아베스틸과 참석자들은 노사가 상생하는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 아동센터에 희망 물품 기증



5월 31일 세아베스틸이 군산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꿈품센터'에서 희망물품 전달 기증식을 가졌다. 세아베스틸은 약 7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 등을 군산시 소재 51개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세아베스틸은 다문화 가정 9가구의 도배·장판 비용 900만원을 지원하고, 선풍기 200대를 기탁하는 등 '희망나눔 구좌제'를 통한 이웃사랑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아빠와 함께하는 현장체험여행

세아베스틸이 6월 29일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사원 80명을 대상으로 '2013 아빠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여행'을 실시했다. 현장체험여행은 자녀와 함께 주말여행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된 가족여행이다. 이번 여행은 전북 임실에서 치즈 만들기과 피자 굽기, 비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7월 5일 세아베스틸이 '2013 꿈나무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군산시 소재 19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19명을 선발하여 장학증서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세아베스틸 임직원 급여 일부로 마련된 570만원(인당 3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됐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지난해에도 군산시 소재 12개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12명에게 총 1,4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불법 S/W관련 교육시행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이 7월 24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사내 PC에 설치한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사용근절 서



약서를 작성하여 '정직'을 몸소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충주공장 2013 관리자 워크샵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이 6월 14일 청풍리조트에서 '2013년 관리자 워크샵'을 시행했다. 워크샵에서는 상반기 팀·공정별 실적과 하반기 계획, 원가 및 품질경쟁력 확보 방안이 수립됐다. 박상화 충주공장장은 "원가절감, 품질 확보 방안을 실천하고,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 '고객 불만 제로' 공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번디

광주공장 재테크 특강



한국번디 광주공장이 7월 11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효율적인 재무설계와 재테크 활용을 위한 '직장인의 효율적인 재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에프앤닥터스 김천수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자산관리 방법을 습득하여 돈에 대한 가치관과 행복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강은 금융상품의 이해를 돕는 강의도 이루어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세아 ESAB

2013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세아 ESAB 유덕상 대표와 오경수 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7월 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3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상했다. 세아 ESAB은 지속적인 노사화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상생협력에 힘쓰고 임금체계 개선, 근로복지제도 운영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상반기 Lean 개선활동 발표대회



세아 ESAB이 6월 28일 본사 대강당에서 '2013년 상반기 Lean 개선활동 발표대회'를 실시했다. 유덕상 대표를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개 팀이 17건의 개선테마를 주제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최우수상은 '포장 공정 자동화 구현'을 주제로 Lean 활동을 이끈 설비관리팀이 수상했다.

경상남도지사 표창장 수상



세아 ESAB이 6월 25일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39회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경상남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세아 ESAB은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고 기술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세아 ESAB은 지난 '38회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아로지스

SCM 및 TPL 교육 실시



세아로지스가 7월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SCM 및 TPL 영업교육'을 실시했다. SCM과 TPL 분야에서 다년간 현장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실습이 이뤄졌다. 특히 영업 담당자의 영업스킬 능력 향상 및 TPL 전략, 신규 고객 발굴 및 유치방안 등이 구성돼 영업 전반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방점을 뒀다.

세아홀딩스

입사

한상혁 자원개발파트

결혼

신승환 법무파트

세아제강

입사

김진규 본사 회계팀
박진우 본사 생산계획팀
임민호 본사 STS내수팀
배동훈 본사 STS수출팀
기영준 본사 수출1팀
정성훈 본사 수출1팀
강봉조 본사 수출2팀
임한혁 본사 수출3팀
이원석 군산강관 생산팀

출산

고문종 본사 컬러강판영업팀
이승천 창원 생산팀
길장훈 군산강관 생산팀
민병철 부산 STS영업팀

결혼

장완주 본사 컬러강판영업팀
정기영 본사 자재팀
하정우 포항 기술연구소
송진길 창원 생산1반
최일규 광주영업팀

조의

임태원 포항 설비보전팀(모친)
안병석 포항 생산1팀(모친)
백동규 포항 생산2팀(장인)
박태준 포항 생산1팀(부친)
박기준 포항 업무지원팀(부친)
이성철 포항 생산1팀(모친)
이은종 창원 업무출하반(배우자)
오세연 군산판재 생산2팀(부친)

세아베스틸

입사

정보람 업무지원팀
임영환 연구지원팀

결혼

이의상 단)영업팀
전승일 연주팀

조의

정종훈 제강팀 (부친)
서원근 제강팀 (부친)
강태욱 대형압연팀 (부친)
송기정 연주팀 (부친)
안문준 대형압연팀 (모친)
양건석 특)품질보증팀 (장인)
김동혁 압연설비팀 (장인)

세아특수강

입사

박현모 포항 품질보증실
김남규 충주 품질보증팀
황용우 포항 설비팀

결혼

문성진 포항 생산팀

한국번디

입사

김학민 서울 경영관리팀
양승호 광주 연구1팀

출산

정철영 평택 QM팀

세아 ESAB

입사

류용재 품질경영팀

출산

강정환 국내영업팀

세아메탈

입사

이진규 원주 품질경영팀

출산

김규선 원주 품질경영팀



Trivia Quiz

세아가족 7+8월 호 퀴즈를 맞춰라!

독자 여러분, 세아가족 7+8월 호 재미있게 읽으

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답을 적어서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의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자					
강종현	경남 창원시 웅남동	배신현	대구시 남구 명덕로	이상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김연순	경남 창원시 웅남동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공경로	이종출	전북 군산시 나운동
김형규	부산시 북구 화명동	오석철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진남영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
		유광열	대전시 중구 서문로		



Hello SeAH Family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문의 : chris.ahn@seah.co.kr

02-6970-0093



Message

〈세아가족〉독자의견

김연순 세아의 상징 '라이징 커브'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보를 통해 세아 CI의 V자가 '별갈게 달궈진 무쇠 덩어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세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송재하 날로 발전하는 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국내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세아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특히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진남영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택공장의 세아인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제품으로 생활을 풍요롭게 편리하게 해주는 평택공장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세아가족〉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상기	세아 E&T 화공사업지원팀
이찬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김민구	세아 M&S 서울사무소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특수관공장)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판재공장)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관리팀(평택)	김미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이경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이송이	한국번디 품질경영팀(광주)	김승렬	드림라인 사업기획팀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손영기	세아 ESAB 종합운영팀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SECRET NOTE

진심으로 ‘정직’을 실천하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항상 올바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생활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세아홀딩스 미래전략파트
김윤성 대리의 시크릿 노트를 공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홀딩스 미래전략파트에 근무하는
김윤성 대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직에 관련된 신념 중 하나는
‘진심은 통한다, 단 시간은 걸린다’입니다.
진심을 다하면 마음이 통하고, 업무 효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럼 제가 정직을 실천하는 방법을 공개할게요!

STEP 1 휴식을 원할 때, 정직하게 쉬었다 하자!

업무 중, 능률도 떨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 들려오는 구원의 목소리! “김 대리, 커피 한잔 할래?” 그럼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예!”하고 일어섭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정직하게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겠죠?

STEP 2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빨리 말하자!

업무 진행을 하다 보면, 확신이 없는 일에 선답변, 후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보고를 올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필요한 것은? 바로 SPEED! 일이 커지는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두려운 마음을 살포시 접어 두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STEP 3 공과 사를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지 말자!

저는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을 또다른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차가 높으신 분들을 상사이기 이전에 인생의 선배라는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요. 사적인 질문도 하고, 고민도 털어 놓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적인 유대감도 형성되고 팀워크도 좋아졌답니다.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업무와 생활에 임하는 김윤성 대리처럼
우리 세아가족들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정직을 실천해 가는 건 어떨까요?